



쇼핑몰 상품 비교검색엔진 등장



▲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스톱 쇼핑 시범서비스에 접속, 쇼핑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인터넷상의 모든 쇼핑몰을 클릭 한번으로 검색하는 쇼핑몰 '검색도우미'가 등장했다. 인터넷 한국일보(www.hk.co.kr)는 인터넷개발업체인 인터하우스(대표 한상천)와 공동으로 쇼핑몰 상품정보 검색엔진을 개발, 6월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쇼핑몰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해당 쇼핑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 방문(포탈·Portal)사이트가 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구매가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검색도우미인 '검색로봇'은 국내 인터넷상의 모든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보가운데 가장 싼 제품 정보를 찾아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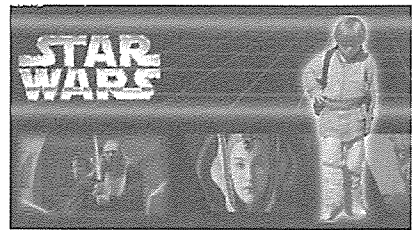
이러데면 '전자수첩'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일보 쇼핑몰 검색도우미에서 '전자수첩'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로봇은 국내외 각종 쇼

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수첩 가운데 가장 저렴한 제품을 파는 쇼핑몰부터 띄워준다. 즉 전자수첩관련 쇼핑몰을 모두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싼 제품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것. 화면에 뜬 수십개의 쇼핑몰은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클릭폼'을 팔았던 이용자들은 이제 원하는 상품의 가장 싼 제품 정보와 관련 쇼핑몰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쉽게 제품의 가격과 품질 등의 정보를 비교한 후 최적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검색로봇은 이를 위해 24시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가장 싼 가격정보를 1초마다 새롭게 경신, 저장해 놓았다가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바로 제공해주는 '24시간 정보검색'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상품명을 모를 경우 비슷한 상품명을 입력해도 원하는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유사어사전' 기능도 제공한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 물건을 사고 파는 '실시간 장터'도 마련한다. 매초마다 축적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세부자료를 검색하거나, 가격변동 추이 등의 부가정보도 별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제 전세계 쇼핑몰의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인터넷 한국일보에 들어가 '원스톱 쇼

핑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영화도 본다



▲ 네가는 예고편 뿐만 아니라 영화전편을 제공한다.

가정까지 초고속 인터넷회선이 확산되어 영화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극장 홈페이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선택할 때 극장계 시판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눈으로 보고 직접 예고편을 보는 것만큼 신통치 못하다. 하지만 예고편을 보러 일부러 극장을 찾거나 영화소개용 TV프로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럴 때는 인터넷극장을 이용하면 된다. 각 영화사나 영화관련 정보제공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일부러 극장을 찾거나 TV프로를 기다리지 않아도 생생한 예고편을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화 전편을 다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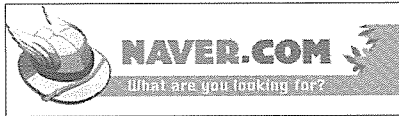
20세기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 등의 영화제작사와 네가필름 등의 국내외 영화정보제공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영화 예고편을 AVI, MOV 등의 동

영상파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작품들은 미개봉작부터 현재 상영중인 최신작, 과거 개봉작까지 수백편이 넘어 영화박물관이나 다름없다. 단순한 동영상 외에 관련 문헌자료, 사진,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음악까지 수록돼 있어 매니아들에게는 보물창고나 마찬가지. 인터넷 극장은 홈페이지에 따라 전송방식에 차이가 있다. MS에서 국제표준으로 밀고 있는 미디어플레이어 방식을 채택한 홈페이지는 모든 자료가 전송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시시각각 전송되는 대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임블레이즈(emblaze) 방식을 채택한 홈페이지는 일단 자료가 모두 전송돼야 영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료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추세는 임블레이즈방식보다 미디어플레이어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편. 화질은 하나로, 두루넷, 한국통신의 ISDN 등의 고속인터넷서비스나 인터넷전용선이 설치된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극장을 방불케 한다.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이 전송되므로 극장처럼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다.

모뎀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질이 좀 떨어진다. 화면을 작게 하면 상관없지만 보기가 불편하다. 화면을 모니터 전체크기로 확대하면 모뎀 가운데 가장 빠른 56Kbps급을 사용해도 화면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떨림현상이 일어나고 영상이 뭉개지기도 한다.

외국 인터넷사 한국서 포탈 전쟁

미국 최대의 포탈사이트를 자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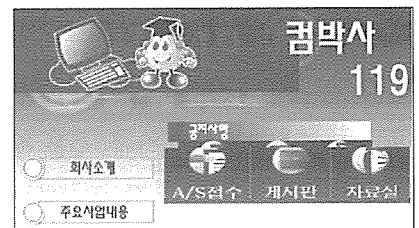
▲ 야후, 라이코스 등 미국 포탈사이트와 경쟁하며 국내 최대 포탈을 지향하는 네이버의 로고.

야후와 라이코스가 최근 국내 사이버시장을 대상으로 설전을 벌였다. 최근 방한했던 미국 라이코스사의 밥 데이비스회장은 "최고의 인터넷 포탈 서비스이던 야후를 라이코스가 제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방문자수에서 라이코스가 야후보다 60만명 더 많았던 것. 데이비스회장의 말에 야후 코리아가 발끈하며 '4월에는 다시 야후가 라이코스를 2백30만명 차로 앞섰다'며 반박 자료를 뿌렸다. 세계 1, 2위의 포탈업체가 한국 사이버시장에서 설전을 벌인 것.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포탈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포탈서비스에서 1위를 지켜온 야후 코리아에 국내 기업들이 최근 안방을 내줄 수 없다며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미국에서 야후와 1등 자리를 겨뤘던 라이코스도 7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AOL 등 내로라하는 포탈 서비스들도 입성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포탈시장을 1위로 목표를 세운 네이버는 최근 모기업인 삼성SDS로부터 분사, 벤처기업으로 독립했다. 네이버는 정보검색부문에서 결코 야후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로 알려진 한메일넷도 최근 회원 2백만명을 돌파했다. 한메일넷은 하루 페이지뷰(네티즌들이 사이트를 보는 횟수)가 1천

만번에 육박해 야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1백75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PC통신 천리안도 최근 콘텐츠를 인터넷기반으로 재편한다는 구상 아래 포탈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야후는 하루 1천2백만 페이지뷰를 기록할 만큼 성급 앞서나가고 있다. 하반기부터 무료 전자우편, 게시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야후커뮤니티'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산업의 자본과 라이코스의 고품질 서비스가 결합한 라이코스 코리아의 위력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라이코스는 한국 문화에 맞는 서비스와 무료 홈페이지 서비스로 인기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포탈(Portal)서비스란 인터넷의 '관문' 서비스. 전자우편,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등 각종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거나, 필요한 홈페이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20만원이면 '486' 이 펜티엄으로



▲ 업그레이드, 수리방법 등을 제공하는 '컴닥터119' 홈페이지.

저렴한 가격으로 고물 취급을 받는 486컴퓨터를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그동안 저급기종을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게 마련. CPU칩, 램, HDD, 메인보드, 케이스 등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하려면 어렵잡고 뽑아본 전적만

도 50만~60만원에 달한다. '차라리 컴퓨터 한대를 사고말지' 라는 푸념과 함께 포기하는 게 예사다.

하지만 컴퓨터 수리 전문업체 「컴닥터 119」(3275-3000, 861-4118)는 기존 업그레이드 가격의 절반 가량만 들이고도 구형 486PC를 스타크래프트 등 최신 3D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화려한 변신'을 시켜준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486PC용 업그레이드 메인 보드를 이용, 저급기종의 케이스를 그대로 활용해 메인보드와 CPU 칩 등 필요한 주요 부품만을 저렴하게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

예를 들어 486PC에 셀러론 366 CPU, 32M 램, VGA 카드, 메인보드 등을 업그레이드, 셀러론급 PC로 변신시키는데 20만원 가량이면 족하다. 더구나 기존 부품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보상까지 해주기 때문에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마땅히 고장수리를 받을 곳도 없는 '천덕꾸러기' 구형 PC만을 전문적으로 무료 수리해주는 곳도 생겼다. 컴퓨터봉사회(3673-4482)는 구형 PC 사용자들을 위한 '컴퓨터 무료 수리' 행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영세 유통회사나 소매상들의 잦은 도산으로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해 방치해 뒀던 조립 PC나 구형 PC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주요 부품이 망가져 교체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품비는 지급해야 하지만 수리비는 전혀 받지 않는다.

전화선으로 2백배 빠른 인터넷 즐긴다

지금의 전화선으로 현재보다 2백배

가량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상품이 등장했다. 신생 벤처기업 오버넷은 중전 전화선 속도를 초당 한글 62만5천자를 전송할 수 있는 10Mbps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개발, 유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 회사의 합작투자사인 미국 CAIS인터넷사(지분 33.3%)가 개발한 기술로, 기존 전화선망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붙여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식. 별도 장비를 부착해 전화선 하나로 음성과 데이터 신호를 고주파로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전화선으로 빠른 통신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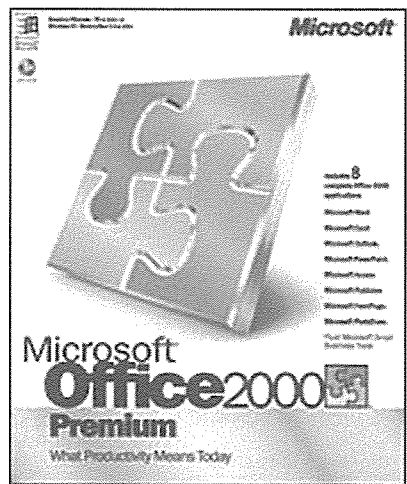
장비는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월잭', 음성과 데이터를 합쳐주는 컨트롤유니트로 구성돼있다. 월잭은 컴퓨터와 전화선에, 컨트롤유니트는 아파트단지내에 들어가는 전화선을 모아놓은 가입자망 박스 안에 설치된다.

부착만 하면 기껏해야 56Kbps급에 불과한 전화선이 10Mbps급의 초고속 전용회선처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전용모뎀 없이도 24시간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하고, 인터넷과 전화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기존의 전화선이 설치돼있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전화선을 교체하지 않고 기업의 근거리통신망(LAN)에 버금가는 통신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용료는 장비설치비 10만원에 월 이용료 3만5천원(부가세포함). 이와 비슷한 하나로통신 상품은 설치비 10만원에 월 4만8천원. 특히 하나로

통신 상품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와 전송시 속도가 서로 다르지만 오버넷 상품은 동일하다. 단점은 거리 제한. 기본장치를 부착했을 경우, 전화와 가입자망 박스까지의 거리가 280m를 넘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보다 길 경우에는 부가장치를 별도로 설치, 최대 6km까지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 캐릭터빌 오피스텔 40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전용망 사업자인 드림라인, 경비서비스업체인 '에스원'과 공동으로 각각 초고속인터넷 및 사이버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S, 한글오피스2000 6월 말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2000.

'꿈의 사무용 통합소프트웨어'를 지향하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오피스 2000'이 국내에서도 '한글 오피스2000'으로 출시된다. 오피스2000은 문서작성프로그램인 워드, 표계산용 프로그램인 엑셀, 프리젠테이션용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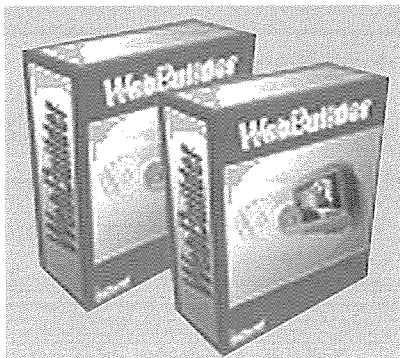
기타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 사무용 통합소프트웨어로 오피스 97의 후속제품이다.

오피스2000은 기존 오피스97에 비해 사용이 편리해지고 관리가 쉬워진 점이 특징.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 초급 사용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메뉴만을 제공하고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은 메뉴를 점차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삭제파일을 알아서 복구해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으며 도움말 기능을 초보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개편했다.

특히 한글판에서는 한글처리기술을 크게 개선, 현재 표현가능한 옛 한글 1백50만자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및 중국에서 사용하는 2만7천자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에서 MS제품에 대한 가격논쟁으로 판매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글오피스97의 경우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처음 사용자용이 41만8천6백원, 업그레이드용은 32만3천4백원이었다.

다존기술, 웹 DB 쉽게 만든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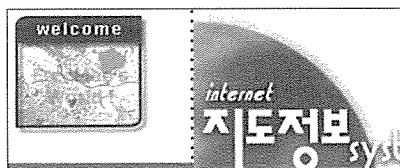
▲ 인터넷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제작해주는 '웹빌더'.

다존기술은 웹데이터베이스(DB)를 손쉽게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저작도구인 '웹빌더'를 개발해 시판한다고 최근 밝혔다.

웹빌더는 인물정보, 취업정보, 스크랩관리, 문서관리, 영업관리, 고객관리 등 학교나 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웹DB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 웹빌더를 이용하면 홈페이지 개설은 물론 정보공유 시스템, 전자 카탈로그 쇼핑몰, 지식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등 웹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수정·변경이 용이하다는 게 다존기술측이 밝히는 장점. 이밖에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를 동시에 지원하며 CUG기능, 그룹별 권한설정 기능 등 다양한 제어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재 다존기술의 홈페이지(www.dazone.co.kr)에서 45일동안 사용 가능한 데모버전을 내려받아 누구든지 사용해 볼 수 있다. 가격대는 1백50만~8백50만원. 문의 (02)596-6181

인터넷 전자지도 인기



▲ 한국통신정보기술이 제공하는 프리맵 전자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지역 및 건물 약도 그림을 서비스하는 인터넷 전자지도가 인기를 끌고있다. 검색어 창에 주소, 우편번호, 건물 이름중 하나를 입력하면 2500대 1로 축약한 전자지

도가 모니터에 나타난다. 한국통신정보기술이 운영하는 프리맵(www.freemap.net)홈페이지는 매일 4천~5천명의 이용자가 몰리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자지도.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대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맵서비스' '자동차길' '물앤커넥션' 등의 아이콘이 뜬다. 특정 지역과 건물의 약도는 맵서비스에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은 자동차길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청 주변지도를 보려면 맵서비스 아이콘을 누른 뒤 상호검색 메뉴에 관세청을 입력한 뒤 검색메뉴를 마우스로 누른다. 지도 크기는 작은-중간-큰 크기로 바꿀 수 있으며, 다시 10단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지도 내부의 다른 건물을 마우스로 누르면 이 곳이 중심이 된 지도가 나타난다. 현재 12만개의 관공서-주요 건물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길은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른 도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모드를 상호검색으로 바꾼 후 출발지에 '롯데호텔'을, 도착지에 '관세청'을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와 구간별 지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지도는 약점도 갖고 있다. 일단 전자지도는 홈페이지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 전화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 프리맵 서비스도 검색어 사전과 지도, 지형 지물이 정확하지 않아 지도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①7